

용화동(龍禾洞)



용화동의 행정구역은 4개의 법정동에 19개통 14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화동 사무소 전경>



☒ 용화동 개항

- 근치연혁

용화동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화동, 하화동 일부와 용정동을 병합하여 용정동과 상화의 이름을 따서 용화리가 되었고, 1986년 온양시 승격에 따라 용화동의 명칭이 계속 유지 되었다.

- 반 수

용화동에는 용화동 13개통, 신인동 2개통, 기산동 2개통, 초사동 2개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밑으로 149개반으로 나뉜다. 용화동은 온양시로 승격 당시 만해도 7개통이었으나 지금은 13개통으로 늘어났다.

- 가구수

가구수는 4,768개가구이다. (2001년 12월 31일 기준)

- 인 구

인구수는 15,204명(남자 7,624명 여자 7,580명)이다.

- 면 적

총 면적은 13.01km² 이다.

- 경지면적

경지면적은 총 1,270ha로 답이 235ha 전이 201ha 임야가 616ha 기타 218ha이다.

농업용 기구 및 기계보유현황을 보면 경운기 267대, 트랙터 29대, 이앙기 72대, 콤바인 17대 양수기 119대, 건조기 13대, 관리기 120대 등을 구비하고 있다. (2000년 12월 31일 기준)

－ 농가구 현황

농가수는 682 가구로 총 가구 수의 15%이다.

－ 산업별 현황

산업별 사업체수를 보면 제조업이 37곳, 건설업이 12곳, 도소매 소비자 용품 수리업이 28곳,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10곳 등으로 조사되었다.

－ 학교별 현황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2개소가 있다.

－ 의료시설

의료기관은 의원이 3곳, 치과병원이 1곳, 한방병원이 1곳으로 모두 5곳이다.

－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농협 1곳, 우체국1곳이 있다.

－ 문화재 현황

없음.

－ 공장 현황

회 사 명	공장 소재지	생산 품명
공영산업	용화 297-6번지	
보성장재공업	용화 297-6번지	
정산 생명 공학	용화 신인동 236-5번지	
(주) 용산 아산공장	용화 기산동 236번지	
우진 도장	용화 기산동 236번지	
(주) 엔바이오 테트놀러지	용화 초사동 74번지	
(주) 고려인삼제약	용화 초사동 156-3번지	

－ 종교 분포

분 류	단 체 명	소 재 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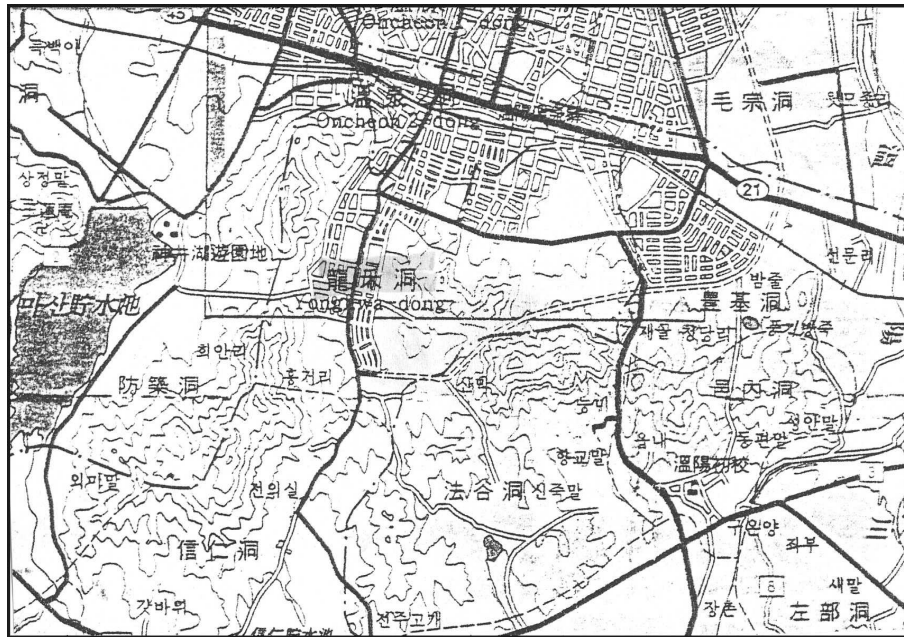
기 독 교	남부 교회	용화동 42-32번지
	남산침례 교회	용화동 295-16번지
	동산 교회	용화동 626번지
	산돌 교회	용화동 251-3번지
	새 누리 교회	용화동 758번지
	새 생명 교회	용화동 296-6번지
	새 생활 침례 교회	용화동 577번지
	새 언약 교회	용화동 362번지
	새 온양 교회	용화동 59-58번지
	소망교회	용화동 295번지
	수정교회	용화동 578번지
	순복음 중앙 교회	용화동 88-6번지
	아산 성은 교회	용화동 729번지
	아산 순복음 교회	용화동 88-6번지
	열린 성결 교회	용화동 584번지
	온양 루터 교회	용화동 846번지
	은총 교회	용화동 29번지
	주 사랑 교회	용화동 16-145번지
	주영 교회	용화동 600번지
	충신감리 교회	용화동 620번지
	한민교회	용화동 571번지
	희망감리 교회	용화동 산55번지
	신인감리교회	용화 신인동 17-2
	기산 침례교회	용화 기산동 142-3
	아산 제일교회	용화 초사동 691-9
불 교	동국사	용화동 산55번지
	보광암	용화동 산61번지
	수도암	용화동 산71번지
	정각사	용화동 산60-20번지
	홍륜사	용화동 산50-3번지
	회인사	용화 신인동 94
천 주 교	용화 천주 교회	용화동 553번지

- 특기 사항

없음.

(1) 용화동 《 용화 1통 ~ 용화 13통 》

<용화동 전체 위치도>



<조사당시 용화동 전경 사진>



— 명칭유래

용화 1통은 용화동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며 용화 2통은 용화주공 1단지(1986년에 건립된 아파트단지)이고 용화 3통은 용화동 남쪽의 전형적인 시골마을로 숲이 우거지고 계곡에서 물이 많이 흐르고 가재가 많이 서식하였다고 하여 가재골이라 하며 4통과 5통은 너더리라 하는데 예전에 마을앞 개울에 널판때기로 놓은 다리가 있어 널다리라 부르다 너더리로 변했다고 한다. 6통은 용화동 서쪽 남산을 등지고 아늑하게 자리잡은 마을로 예전에 앞산에 참나무가 무성하여 숲골이 솥골로 부르게 되었고 아래솥골, 윗솥골로 나뉘는데 6통이 아래솥

골, 7통이 윗숯골, 8통은 웃숯골이다.

9통은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어 용 샘이 지금도 존재하는 곳으로 용정리라 불리며 10통은 용화주공 2단지로 1989년에 건립된 아파트이다. 용화 11통은 용화주공 3단지로 1995년에 건립되었으며 12통은 1996년에 건립한 아파트 단지로 온천마을이라 하고 13통은 용화동 중앙에 위치한 마을로 온양중학교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

－ 통별 인구분포

용화동의 총 인구는 13,600명이다

구 분 마 을 명	계	남자	여자
용화1통	619명	299명	320명
용화2통	752명	357명	395명
용화3통	373명	190명	183명
용화4통	762명	404명	358명
용화5통	1,374명	650명	724명
용화6통	1,103명	541명	562명
용화7통	781명	378명	403명
용화8통	1,058명	529명	529명
용화9통	142명	84명	58명
용화10통	1,058명	529명	529명
용화11통	2,983명	1,509명	1,474명
용화12통	2,412명	1,201명	1,211명
용화13통	491명	254명	237명

－ 통별 가구 수

가구 수는 4,26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농가는 393가구이며 비농가가 3,867가구이다.

통별 상세 현황은 다음의 표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구 분 마 을 명	계	농가	비농가
용화1통	204 가구	30 가구	174 가구
용화2통	217 가구	33 가구	185 가구
용화3통	122 가구	27 가구	95 가구
용화4통	244 가구	21 가구	223 가구
용화5통	438 가구	39 가구	399 가구
용화6통	378 가구	32 가구	346 가구

용화7통	240 가구	31 가구	209 가구
용화8통	299 가구	37 가구	262 가구
용화9통	48 가구	31 가구	17 가구
용화10통	357 가구	55 가구	302 가구
용화11통	865 가구	18 가구	847 가구
용화12통	690 가구	19 가구	671 가구
용화13통	157 가구	20 가구	137 가구

－ 통별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용화1통	100%	15%	85%
용화2통	100%	15%	85%
용화3통	100%	22%	78%
용화4통	100%	9%	81%
용화5통	100%	9%	81%
용화6통	100%	8%	82%
용화7통	100%	43%	57%
용화8통	100%	12%	88%
용화9통	100%	64%	36%
용화10통	100%	15%	85%
용화11통	100%	2%	98%
용화12통	100%	3%	97%
용화13통	100%	13%	87%

－ 통별 농경지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용화1통	－	－	－
용화2통	－	－	－
용화3통	29ha	13ha	16ha
용화4통	6ha	1ha	5ha
용화5통	3ha	2ha	1ha
용화6통	5ha	1ha	4ha
용화7통	1ha	－	1ha
용화8통	5ha	－	5ha
용화9통	31ha	17ha	14ha
용화10통	－	－	－
용화11통	－	－	－

용화12통	-	-	-
용화13통	-	-	-

－ 통별 농기계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콤바인	건조기
용화1통	-	-	-	-	-	-	-
용화2통	-	-	-	-	-	-	-
용화3통	3대	-	1대	5대	5대	-	-
용화4통	3대	-	-	-	15대	-	-
용화5통	6대	-	3대	4대	2대	-	-
용화6통	-	-	-	1대	10대	-	-
용화7통	-	-	-	2대	10대	-	-
용화8통	7대	-	3대	1대	20대	-	-
용화9통	20대	1대	2대	5대	10대	-	-
용화10통	-	-	-	-	-	-	-
용화11통	-	-	-	-	-	-	-
용화12통	-	-	-	-	-	-	-
용화13통	-	-	-	-	-	-	-

－ 통별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엠프	방송시설	마을문고	사물놀이악기
용화1통	-	1조	1조	-	-
용화2통	APT회관	1조	1조	-	-
용화3통	1개소	1조	1조	-	-
용화4통	1개소	1조	1조	-	1조
용화5통	1개소	1조	1조	-	1조
용화6통	1개소	1조	1조	-	1조
용화7통	1개소	1조	1조	-	1조
용화8통	1개소	1조	1조	-	1조
용화9통	1개소	1조	1조	-	-
용화10통	1개소	1조	1조	-	-
용화11통	1개소	1조	1조	-	-
용화12통	1개소	1조	1조	-	-

용화13통	1개소	1조	1조	-	-
-------	-----	----	----	---	---

－ 통별 고령자

용화1통은 양씨할아버지(80세)이며, 용화 3통은 박성구 할아버지(73세)이며, 용화 4통은 구복학 할아버지(88세), 용화 5통은 구본학 할아버지(89세), 용화 6통 이상웅 할머니(90세)이며 용화 7통은 성씨 할머니(90세)이다. 용화 8통은 조종구 할아버지(81세)이며 용화 9통은 이재춘 할아버지(81세)이다.

(용화 2통과 용화 10통, 용화 11통, 용화 12통, 용화 13통은 아파트 단지로 조사불능)

－ 통별 사진

<용화 1통>



송악나드리 철도 너머 동쪽에 위치

<용화 2통>



온양온천 시내와 된 곳으로 동 : 천안방면 · 서 : 온양온천시내방면
남 : 읍내동방면 · 북 : 권곡동방면

<용화 3통>



용화동 남쪽에 위치
온양온천 철로 넘어 읍내동과 용화4통이 연결되어있는 위치

<용화 4통>



온양온천 시내 남쪽 철쭉 너머 위치
용화 동쪽에 위치한 마을

<용화 5통>



온양온천 시내와 철쭉 사이로 연결된 남쪽에 위치
용화 4통의 첫머리에 위치(너더리 입구)

<용화 6, 7통>



6통: 온양온천에서 남쪽 방향 온천 2동 옆에 위치남산을 등지고 있음

7통: 온양온천에서 남쪽으로 500M 남산 기슭에 위치

<용화 8통>



동 : 용화 10통(주공 2단지) · 서 : 남산

남 : 용화 9통(홍거리) · 북 : 온양온천동

<용화 9통>



동 : 법곡 1통(능미) · 서 : 남산 · 남 : 신인2통 · 북: 온천동
올림픽 국민생활관, 예비군 훈련장이 있음

<용화 10, 11통>



10통: 동 : 산기슭 · 서 : 용화 9통 ,
북 : 온천동용화 10통 안에 용화 주공 2단지가 위치. 11통: 용화 3단지 주공APT

<용화 12통>



온천마을 아파트

<용화 13통>



온양중학교가 위치한 곳, 용화동 중심부

－ 통별 지명

- 가재 - 골¹ 【마을】 가재골에 있는 마을.
- 가재 - 골² 【골】 너더리 서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 가재가 많다 함.
- 너 - 더리【판교】 【마을】 용화리 동쪽에 있는 마을. 널쪽으로 다리를 놓음.
- 매 - 봉【매봉재】 【산】 갓골 뒤에 있는 산, 측량의 표적이 있음.
- 매봉 - 재 【산】 → 매봉.
- 보광 - 암(普光庵) 【절】 용화리 산 66번지에 있는 절.
- 사가(四街) 【마을】 → 사거리.
- 사 - 거리【사가】 【마을】 너더리 남쪽에 있는 마을. 길이 네갈로 되었음.
- 상화(上禾) 【마을】 → 웃숫골.
- 새 - 터 【마을】 사거리 옆에 새로 된 마을.
- 쇠 - 고개【우고개】 【마을】 너더리 동쪽에 있는 마을. 와우형이 있다 함.
- 수도 - 암(修道庵) 【절】 용화리 산 7번지에 있는 절, 1933년에 방태근(方泰根)이 세움.
- 숫 - 골【화리】 【마을】 너더리 서쪽에 있는 마을.
- 아래 - 숫골【하학】 【마을】 숫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 온수군방운 - 신단비(溫水君方雲神檀碑) 【비】 홍거리 뒷산에 있는 온수군 방운의 신단비. 높이 9척, 너비 3척, 두께 3척의 큰 비인데 1960년에 세웠음.
- 용 - 샘【용우물】 【우물】 홍거리에 있는 우물. 용이 올라갔다 함.
- 용 - 우물 【우물】 → 용샘.
- 용정 - 리(龍井里) 【마을】 → 홍거리.
- 우 - 고개(牛古介) 【마을】 → 쇠고개.
- 웃 - 숫골【상화】 【마을】 숫골 위쪽에 있는 마을.
- 판교(板橋) 【마을】 → 너더리.
- 하화(下禾) 【마을】 → 아래숫골.
- 홍-거리【홍곡, 홍정리, 용정리】 【마을】 숫골 남쪽에 있는 마을.
 - ① 모양이 흙같이 되어 흙거리라 하던 것이 변하여 홍거리 또는 홍곡이 되었다고 함. ② 용샘이 있음.
- 홍곡(弘谷) 【마을】 → 홍거리.
- 홍정 - 리 【마을】 → 홍거리.
- 화리(禾里) 【마을】 → 숫골.

용화 2통은 1983년 APT 240가구가 건립되면서 용화 주공 1단지가 되었다. 용화 3통은 옛 날에는 가갯골 이라고 하여 읍내동 방면으로 가는 대로쪽에 있었고 산골짜기에 물이 많이 흐르고 숲이 우거졌으며□가재□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하여 가갯골 이라 부르고 있다. 용화 4통 너

더리 마을은 옛날 마을 안에 개울(샘)이 있었는데 개울을 건너 다니기 위하여 널판쪽 다리가 있었는데 널판다리를 줄여서□널다리□라고 하다가□너더리□마을이라고 전한다. 용화 5통은 옛날에는 너더리 과수원 마을이라 하였으나 인구가 늘고 도시계획 정리로 인하여 용화 5통으로 분리되었는데 지금도 너더리 마을이라고 주민들은 부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용화 6통은 옛날 이마을 뒷산에 나무가 무성했는데 특히 참나무가 많아서 마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하여 나무꾼이□참나무숯□을 구워서 시내 장에 팔아 생활을 하여 참나무로 숯을 구운 마을이라고 해서 썩골, 아랫골, 윗골 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용화 7통은 용하리 2구에서 1986년도 온양시 승격으로 용화 7통이 되었으며 현재는 아산시 용화동 7통이라고 하며 7통, 8통으로 분통 되었다. 용화 8통은 옛날에는 숙골 이라고 하였으며 그 후 숙풀 위쪽에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며 현재도 윗숙골 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부르고 있다.

용화 11통은 용화동 용화 주공 3단지라고 한다.

용화 12통은 용화동에서 새로 생긴 아파트로□온천마을 아파트□라고 한다. 용화 13통은 아산시 용화동 13통에 속해있는 용화 온천마을 아파트라고 한다.

－ 전설

● 용 화 리(용화동)

어느 한 마을에 화순이라는 처녀와 용칠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마음씨가 고운 처녀 화순, 누구보다 화순을 아껴주는 용칠 둘이 사이는 누구보다도 가까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서로서로 아껴주는 사이였다. 화순이와 용칠이는 날마다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날 화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져 용칠이에게 말했다. 용칠이도 속으로 두려웠다.□나 먼데로 떠나□화순이의 말을 끝맺기도 전에 용칠의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물었다.□먼데로?□그제야 용칠은 알아차린 듯 고개를 떨구었다. 둘은 서로 서로 아무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드디어 화순은 식을 올리고 떠났다. 화순이가 떠난 후 용칠은 이름모를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화순과 용 칠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용칠의 용자와 화순이의 화짜를 따서 용화리라 불렀다고 한다.

● 너 더 리

용화동 한 마을은 옛날 판교리라 칭하였다. 그 유래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을 앞에는 큰 개울이 있었다. 비가 오기라도 하면 물난리에 온통 마을이 아수라장이 된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의논을 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했지만 좋은 방법은 생각 내지 못했다. 결말을 맺지 못한 사또는 각자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하고 좋은 의견이 떠오르면 알리라 하면서 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 마을에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예쁘고 마음씨 착한 꽃분이가 살았다. 아버지께서는 장님이라 일도 할 수 없었다. 10살 조금 넘은 꽃분이는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야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샅바느질도 하고 남의 잔치집에 가서 일도 도와주고 했다. 집 주인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싫은 기색을 짓지 않고 일을 잘했다. 하루는 잔치집에 갔다가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을 다하고 돌아오는데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산길에 접어들니 더욱 어둡고 짐승들도 갓가지 소리를 내며 울어대니 꽃분이의 마음은 무서움이 가득해 덜덜 떨면서 산길을 재촉해 걸었다. 길을 잘못 들었는지 갈수록 험했다. 한참을 걷다보니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나타났다. 그 집에서 꽃분이 또래의 잘생긴 남자가 나오더니 꽃분이를 맞았다.□낭자의 아버님은 장님이시지요?□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눈을 뜨는 방

법을 알려 드릴테니 잘 사용하라고 하면서 파란 주머니를 주며 아버지의 눈에 대고 두 번 두들기라고 했다 한다. 그리고 또 마을에서는 앞으로 닥칠 물난리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준다며 개울 중앙에다 다리를 놓을때 돌을 사용하지 말고 널빤지로 다리를 만들면 물난리가 없을 것이라고 일러주고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꽃분이는 정신이 없었다. 그리하여 꿈인가 하고 손을 보니 파란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집에 돌아온 꽃분이는 아버지 눈에 대고 두 번 두드렸더니 정말 눈이 떠졌던 것이다. 아버지는 눈을 떠 꽃분이도 밝은 세상도 볼 수 있었다. 물난리 방지책을 사또께 아뢰어 다리를 놓았더니 정말 그해 여름에 물난리가 없었다.

다음해도 그 다음해도…….

꽃분이는 상금을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널빤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널다리라 불렀는데 지금은 흔적 이 남아 있지 않다.

용화 1통부터 6통까지는 전해지는 전설이 없다.

용화 7통은 옛날에는 뒷산에 나무가 울창하고 특히 참나무가 많아 참숯을 구워서 온양온천 시장터에서 팔아 생계를 유지했었다고 전한다. 용화 8통 전설이 없고 용화 9통의 설에 의하면 마을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비바람과 천둥이 치면서 하늘높이 용이 솟았다고 한다. 그래서 용정리=>홍걸이가 되었다고 하며 그 이후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용이 배방면 회룡리 냇가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회룡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 홍걸이 공동묘지의 비화 한가지 => 일때때 이씨라는 사람이 온양온천에 온천을 하러 왔다가 기생과 열애를 하였는데 그 기생이 폐결핵 환자 였다 한다. 그러나 이씨는 너무나 사랑이 깊은 관계로 전염되는 병인 줄을 알면서도 열심히 간호하고 간병을 하였으나 마지막은 두 사람 모두가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입원했었던 병원과 이웃들은 상의하여□홍거리 공동묘지□에 함께 장사를 지내 주었다고 한다. 현재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용화 주공2단지로 변했다.

-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용화동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다.

이 나무는 온 동네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데 음력정월 보름경에 동네 어른부터 어린 꼬마 아이들까지 지내는 제사가 있다. 이것을 일컬어 성황제라 한다. 성황제 때에는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떡을 하고 놀이도 한다. 그 떡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 다음 먹는 사람들은 장수한다 하여 노인부터 꼬마 아이들까지 그 떡을 꼭 먹는다. 이 성황제를 잘 지내야만이 이 동네가 잘 되고 풍년이 든다고 하여 잊지 않고 정성스럽게 지낸다 한다. 그리고 한 여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휴식처로 잠시 동안의 시간이지만 편안하고 시원하게 쉴 수 있다 하여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꼭 기억되는 나무라 한다.

용화동의 대표적인 집단행사로는 13통에 위치한 장충단(온양중학교내)에서 매년 9월 26일 제사를 모시고 있다. 6.25 사변당시 태극단을 조직하여 항쟁하다 숨진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 장 충 단



1950년 6·25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유일한 학생반공 단체이었던 태극동맹단원들은 지하 활동을 하다가 폭로되어 체포, 구금되었으며 온갖 고초를 당하고 마침내는 죽음을 당하였다. 1950년 10월 15일에 당시의 온양중학교 교장이신 이성규의 주선으로 그들의 유골을 모교인 온양중학교 교정에 안장하고 그 넋을 위로 하고자 이단을 모아서 장충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여기에 고이 잠든 영령들은 유진호 교사, 양광석 학생, 이영환 학생, 이택윤 학생, 권길옥 학생, 김은경 학생 등 6인이다. 이 단은 화장암으로 된 3층의 단으로서 탑신은 3각의 3면 평이며, 오목한 형태로 5척의 높이이다. 비문은 제 2면석에 새겨져 있는데, 전면에는 영령들의 이름을 새기었고, 후면에는 이들에 대한 글을 새기어서 후세인들에게 충의를 심어주고 타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산천도 빛을 잃고 초목마저 시름 겹친 6·25국난의 즈음, 타오르는 구국의 정열을 누를 길 없어 맨 주먹의 항쟁 끝에 자유의 수호인이 된 여섯 봉우리 여기에 있다. 오호! 의의 총칼에 가슴팍을 찍힐 때까지도 가슴에 태극기를 지녔었으니 그 이름 장하여라 태극동맹이여. 숭고한 가르침을 영세에 귀감을 삼고, 거룩한 방향이 온 누리에 그윽하게 하고자 이 비를 세워 기념하노라. 단기 4294년 4월 일 온양중학교장」

온양중학교에서는 해마다 9월 26일(그들의 순의일)에 추모식을 거행하여 반공교육의 귀감으로 삼고 이 날을 기리 기념하고 있다. 태극동맹의 결성과 활동 개활에 대한 자료는 역사편 온양에서 있었던 6·25동란 당시의 이모저모…….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 특기사항

용화동은 택지개발 조성으로 아산제일의 주거공간으로 온양중학교가 온천동에서 이전 하였으며 6·25사변 당시 태극단을 조직하여 항쟁하다 숨진 온양중학교의 유진호 선생, 양광석, 이영환, 이택윤, 권길옥, 김은경님 등을 모신 장충단이 있다.

용화 1통은 옛날에는 온양온천 지역에서 가갯골을 통하여 구온양 방향의 길이 협소하여 일정시대 신작로를 개설하여 교통의 변화를 일으킨 마을이다.

용화 2통은 마을 APT 회관내에 경로당을 만들고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노인 건강과 효도 관광 및 경로잔치를 열고 있는 아파트마을이다.

용화 3통은 1974년도 마을 주민들의 협동으로 작지만(약14평) 마을회관을 건립 하였다고 한다.

용화 4통은 과일나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주산지이다. 현재는 도시계획으로 APT 연립의 도시마을로 변했다. 옛날에는 너더리에서 학문을 하기 위해서 훈장님을 찾아 읍내리 성안말까지 가서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용화 5통은 공동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용화 6통은 옛날 솥골에 글방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수명이 약 600년쯤 되는 느티나무가 마을 입구에 있다.

용화 7통은 옛날에는 숲이 우거진 산골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도시화로 변하면서 농촌이 아닌 도시 마을이 되었다.

용화 8통에는 시민체육관이 위치한 방축동과 연결되는 터널이 있다. 옛날에는 산고개 소굴길로 사람은 다니고 우마차는 방축동을 거쳐서 온양온천동으로 다녔다.

용화 9통은 용이 솟았다는 샘과 서민들의 공동묘지와 마을 앞 산밑에 여름에 땀띠기가 나면 치료하여 먹을 감는□오이샘□이 있기도 했다. 현재는 모두 소멸 된 것으로 본다.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시멘트만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약 15평쯤 되는 마을회관을 건립하였다.

용화 10통은 서민들이 입주한 아파트 단지이지만 부녀회원들이 주선해서 쓰레기 재활용 모으기로 모금하여 김장철, 명절에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고 한다.

용화 11통의 대표적인 행사는 1999년부터 청소년들의 효, 충, 예절을 가르치는 한문 교실을 운영하고 전기 절약과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

용화 12통은 아파트 단지로 노인 고령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젊은 층 가정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행사는 부녀회가 모체가 되어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금으로 연말 불우이웃 돕기와 주민 단합에 기여하고 있다.

용화 13통은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전망대 역할을 대신하는 아파트 마을이 특색이다. 대표적인 행사는 부녀자가 중심이 되어 결혼 가정과 무의탁 노인들에게 김장을 담아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아파트 마을이다.